



#편견 관련 속담 따라쓰기

편견과 관련된 속담 116개를 모아 뜻과 예문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. 대표 표현은 ‘갑술 병정이면 다 흥년인가’ · ‘검은 고기 맛 좋다[있다] 한다’ · ‘결방살이 불내기’입니다.

1 보기

바른 글씨의 뼈대와 획을 눈으로 읽습니다.

2 따라 쓰기

열은 글씨를 연필로 천천히 덮어 씁니다.

3 혼자 쓰기

십자 보조선만 보고 스스로 씁니다.

수록 속담 20개 · 이 태그 116개 가운데 관련도 높은 순

01	갑술 병정이면 다 흥년인가	2쪽	11	같이 검기로 속도 검을까	12쪽
02	검은 고기 맛 좋다 한다	3쪽	12	키 크고 몸지 않은 놈 없다	13쪽
03	결방살이 불내기	4쪽	13	병신 마음 좋은 사람 없다	14쪽
04	곡식은 남의 것이 잘되어 보이고 자식은 제 자식이 잘나 보인다	5쪽	14	귀 작으면 앙큼하고 담대하다	15쪽
05	고수머리 옥니박이하고는 말도 말랬다	6쪽	15	송도 계원	16쪽
06	키 크면 속이 없고 키 작으면 자발없다	7쪽	16	시원찮은 귀신이 사람 잡아간다	17쪽
07	중이 미우면 가사도 밋다	8쪽	17	장님 코끼리 만지는 격	18쪽
08	병신 고운 데 없다	9쪽	18	먼 데 무당이 영하다	19쪽
09	외머느리 고운 데 없다	10쪽	19	나갔던 머느리 효도한다	20쪽
10	남의 짐이 가벼워 보인다	11쪽	20	고양이 덕은 알고 머느리 덕은 알지 못한다	21쪽



연습 20쪽 · 짧은 속담은 한 쪽에 두 개, 긴 속담은 한 쪽에 하나만 글자의 모양과 간격을 살피며 천천히 써 보세요.

#편견 모아보기
이 주제 속담 더 보기





1 / 20

갑술 병정이면 다 흥년인가

과거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해서, 비슷한 상황이 또 생겼을 때 무조건 똑같이 나쁠 거라고 미리 단정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.

1 보기

획의 뼈대를 읽기

갑 술 병 정 이 면

다 흥 년 인 가

2 따라 쓰기

열은 글씨를 덮어 쓰기

갑 술 병 정 이 면

다 흥 년 인 가

3 혼자 쓰기

십자선만 보고 쓰기



2 / 20

검은 고기 맛 좋다 한다

겉모습이 별로여도 속은 훌륭할 수 있으니, 겉만 보고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에요.

1 보기 획의 뼈대를 읽기

검	은		고	기	
맛		좋	다	한	다

2 따라 쓰기 열린 글씨를 덮어 쓰기

검	은		고	기	
맛		좋	다	한	다

3 혼자 쓰기 십자선만 보고 쓰기



3 / 20

결방살이 불내기

평소에 마음에 안 들거나 불안하게 하던 사람이 결국 큰 사고를 쳐서 더 밍게 보일 때 쓰는 말이에요.

1 보기

획의 뼈대를 읽기

결	방	살	이	↓	불	내	기
---	---	---	---	---	---	---	---

2 따라 쓰기

열은 글씨를 덮어 쓰기

결	방	살	이	↓	불	내	기
---	---	---	---	---	---	---	---

3 혼자 쓰기

십자선만 보고 쓰기



4 / 20

곡식은 남의 것이 잘되어 보이고 자식은 제 자식이 잘나 보인다

자기 자식은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소중한 보이지만, 다른 사람이 가진 물건이나 돈은 더 좋아 보인다는 사람의 마음을 뜻해요.

1 보기

획의 뼈대를 읽기

곡 식 은 남 의 것 이
잘 되 어 보 이 고 자 식 은
제 자 식 이 잘 나 보 인 다

2 따라 쓰기

열은 글씨를 덮어 쓰기

곡 식 은 남 의 것 이
잘 되 어 보 이 고 자 식 은
제 자 식 이 잘 나 보 인 다

3 혼자 쓰기

십자선만 보고 쓰기

곡 식 은 남 의 것 이
잘 되 어 보 이 고 자 식 은
제 자 식 이 잘 나 보 인 다



6 / 20

키 크면 속이 없고 키 작으면 자발없다

키가 큰 사람은 생각이 깊지 않아 보이고, 키가 작은 사람은 참을성이 없고 급해 보인다는 편견을 나타내는 말이에요

1 보기 획의 뼈대를 읽기

키	크	면	속	이	없	고	
키	작	으	면	자	발	없	다

2 따라 쓰기 열은 글씨를 덮어 쓰기

키	크	면	속	이	없	고	
키	작	으	면	자	발	없	다

3 혼자 쓰기 십자선만 보고 쓰기



7 / 20

중이 미우면 가사도 밍다

한 사람이 싫어지면,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것이 다 싫어 보인다는 뜻이에요.

1 보기 획의 뼈대를 읽기

중	이	미	우	면
가	사	도	밍	다

2 따라 쓰기 열린 글씨를 덮어 쓰기

중	이	미	우	면
가	사	도	밍	다

3 혼자 쓰기 십자선만 보고 쓰기



8 / 20

병신 고운 데 없다

몸이 아프거나 어딘가 불편하면, 마음도 따라서 곱고 바르게 행동하기 어렵다는 뜻이에요.

1 보기 획의 뼈대를 읽기

병 신 고 운 데 없 다

2 따라 쓰기 열린 글씨를 덮어 쓰기

병 신 고 운 데 없 다

3 혼자 쓰기 십자선만 보고 쓰기



9 / 20

외며느리 고운 데 없다

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는 기대치가 높은 만큼 사소한 단점도 크게 보여서 미워 보이기 쉽다는 뜻이에요.

1 보기 획의 뼈대를 읽기

외 며 느 리

고 운 데 없 다

2 따라 쓰기 열린 글씨를 덮어 쓰기

외 며 느 리

고 운 데 없 다

3 혼자 쓰기 십자선만 보고 쓰기



10 / 20

남의 짐이 가벼워 보인다

내가 하는 일은 아주 힘든데,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은 왠지 더 쉬워 보일 때 쓰는 말이에요.

1 보기 획의 뼈대를 읽기

남	의		짐	이		
가	벼	워		보	인	다

2 따라 쓰기 열은 글씨를 덮어 쓰기

남	의		짐	이		
가	벼	워		보	인	다

3 혼자 쓰기 십자선만 보고 쓰기



11 / 20

걸이 검기로 속도 검을까

걸모습이 조금 초라하거나 안 좋아 보인다고 해서, 그 속마음이나 내용까지 나쁘다고 미리 짐작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.

1 보기 획의 뼈대를 읽기

걸	이	↓	검	기	로
속	도	↓	검	을	까

2 따라 쓰기 열린 글씨를 덮어 쓰기

걸	이	↓	검	기	로
속	도	↓	검	을	까

3 혼자 쓰기 십자선만 보고 쓰기

		↓			
		↓			



12 / 20

키 크고 뭉지 않은 놈 없다

키가 아주 큰 사람은 행동이 조금 굼뜨거나 아무지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에요.

1 보기 획의 뼈대를 읽기

키 크 고

뭉 지 않 은 놈 없 다

2 따라 쓰기 열린 글씨를 덮어 쓰기

키 크 고

뭉 지 않 은 놈 없 다

3 혼자 쓰기 십자선만 보고 쓰기



13 / 20

병신 마음 좋은 사람 없다

몸이 불편하면 마음의 여유가 없어 너그러워지기 힘들다는 뜻이지만, 지금은 장애를 가진 사람을 비하하는 아주 잘못된 차별적 표현이에요.

1 보기

획의 뼈대를 읽기

병 신 마음 좋은
사 랑 없다

2 따라 쓰기

열은 글씨를 덮어 쓰기

병 신 마음 좋은
사 랑 없다

3 혼자 쓰기

십자선만 보고 쓰기

병 신 마음 좋은
사 랑 없다



14 / 20

귀 작으면 앙큼하고 담대하다

귀가 작은 사람은 겉보기와 다르게 남을 잘 속이거나 용감하고 대담할 거라고 놀리는 말이에요.

1 보기 획의 뼈대를 읽기

귀		작	으	면				
앙	큼	하	고		담	대	하	다

2 따라 쓰기 열은 글씨를 덮어 쓰기

귀		작	으	면				
앙	큼	하	고		담	대	하	다

3 혼자 쓰기 십자선만 보고 쓰기



15 / 20

송도 계원

지금은 힘이 없다고 무시했던 사람이 나중에 크게 성공해서, 그를 무시했던 것을 후회하는 상황을 이르는 말이에요

1 보기 획의 뼈대를 읽기

송	도	↓	계	원
---	---	---	---	---

2 따라 쓰기 열은 글씨를 덮어 쓰기

송	도	↓	계	원
---	---	---	---	---

3 혼자 쓰기 십자선만 보고 쓰기

			↓			
--	--	--	---	--	--	--



16 / 20

시원찮은 귀신이 사람 잡아간다

보잘것없거나 어수룩해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예상치 못하게 큰 사고를 칠 수 있다는 뜻이에요

1 보기

획의 뼈대를 읽기

시	원	찮	은		귀	신	이
사	람				잡	아	간
							다

2 따라 쓰기

열은 글씨를 덮어 쓰기

시	원	찮	은		귀	신	이
사	람				잡	아	간
							다

3 혼자 쓰기

십자선만 보고 쓰기



17 / 20

장님 코끼리 만지는 격

큰 것의 아주 작은 부분만 보고, 그것이 전부라고 잘못 생각하는 상황을 말해요.

1 보기

획의 뼈대를 읽기

장 님 코 끼 리

만 지 는 격

2 따라 쓰기

열은 글씨를 덮어 쓰기

장 님 코 끼 리

만 지 는 격

3 혼자 쓰기

십자선만 보고 쓰기



18 / 20

먼 데 무당이 영하다

사람들은 보통 가까이 있는 익숙한 것보다, 잘 모르고 멀리 있는 것을 더 대단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뜻이에요.

1 보기 획의 뼈대를 읽기

먼 데 무당이 영하다

2 따라 쓰기 열린 글씨를 덮어 쓰기

먼 데 무당이 영하다

3 혼자 쓰기 십자선만 보고 쓰기



20 / 20

고양이 덕은 알고 며느리 덕은 알지 못한다

가까이 있는 가족의 큰 수고와 고마움은 당연하게 여기고, 오히려 남이 해주는 작은 도움을 더 크게 생각하는 경우를 꼬집는 말이에요.

1 보기

획의 배대를 읽기

고	양	이	↓	덕	은	↓	알	고				
며	느	리	↓	덕	은	↓	알	지	↓	못	한	다

2 따라 쓰기

열은 글씨를 덮어 쓰기

고	양	이	↓	덕	은	↓	알	고				
며	느	리	↓	덕	은	↓	알	지	↓	못	한	다

3 혼자 쓰기

십자선만 보고 쓰기

오늘 따라쓰기를 마쳤습니다.

보호자 확인

